

**이재명 정부의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 전남 구축’ 발표를 환영하며,
RE100 성공의 핵심요소인 에너지AI, 초전도도체, 마이크로그리드 산업의 공급기지
역할을 나주가 해나가겠습니다.**

어제(7. 31.) 대통령실이 발표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K-그리드)’ 구축 계획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미래를 바꾸는 중대한 선언이자, 전라남도가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입니다. 나주시는 이번 발표를 온 시민과 함께 뜨겁게 환영하며, 이재명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계획은 불과 20일 전 정부가 밝힌 RE100 산업단지 조성 구상의 연장선에서, 전남권을 마이크로그리드 중심의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나주가 꿈꾸던 ‘에너지 중심도시’의 미래가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합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구상한 RE100정책의 빠른 성공을 위해 나주시는 최근 승인된 에너지국가산단과 노안일반산단을 RE100클러스터 산단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나주시는 세계 최초 ‘직류(DC) 산업 특화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직류 실증 인프라부터 저압직류 핵심기기 인증센터, 디지털 기반 기자재 산업화, 전력기자재 디지털 전환까지 직류 전 주기 생태계를 완비한 대한민국 유일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무한청정에너지인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를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 산업인 차세대 그리드 센터 및 초전도 시험설비 구축 등 핵심 인프라를 선도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차세대 전력망’ 및 ‘에너지 고속도로’ 전략과 직접 맞는 사업으로, 나주가 직류 송배전 기술과 핵융합 기반 차세대 에너지 산업을 이끄는 ‘양대 축’의 중심 도시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발표에서 강조된 주민참여형 이익공유모델은 나주시가 줄곧 추진해온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에너지 기본소득 기반 구축, 그리고 에너지복지 확대 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정책을 통해 ‘참여와 공유의 에너지 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나주시는 전라남도, 정부, 에너지 유관기관 및 산학연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에너지 대전환을 견인하는 K-그리드 핵심 거점 도시로서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대통령님의 결단과 비전을 다시 한번 뜨겁게 환영하며,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새 시대가 나주에서 시작되었음을 자부하며, 그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1일
나주시장 윤 병 태